

선열이 지킨 대한민국, 후손의 삶으로 이어지다

-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13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매현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 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붙임 2)

이번 행사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 이제복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등이 참석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적 취득을 축하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의 선조들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 인재를 양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의 교정·인쇄와 배포에 참여하고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과 무장항쟁에 힘쓴 신숙 선생,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언론·선전 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헌신한 전일 선생, 만주에서 대종교의 항일 포교활동과 민족운동 지원에 힘쓴 권상의 선생 등이 있습니다.

이날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권성자(41세, 권상의 선생 후손) 씨는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존중하고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4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왔으며, 이번 수여자를 포함해 총 1,44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일”이라며 “후손 여러분이 선조들의 뜻을 이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적 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1. 행사 개요 및 관련 법령·현황
2. 독립유공자 공적 및 후손 소개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책임자	과 장	최문정 (02-2110-4120)
		담당자	사무관	이호수 (02-2110-4131)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6년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일시·장소) '26. 8. 13.(목) 오후 2시, 매현 윤봉길의사 기념관(서초)
- (수여자) 법무부장관
- (수여대상자) 독립유공자 15명(김경천 선생 등)의 후손 23명
※ (후손 국적별 현황) 중국 12, 러시아 5, 카자흐스탄 3, 우즈베키스탄 2, 쿠바 1
- (내빈 등 참석자): 김용만 국회의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수여대상자 가족 및 지인 등 130명 내외

□ 근거 법령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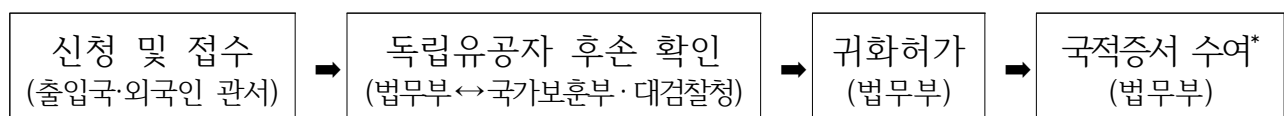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10년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425	680	90	75	40	44	34	66	42	47	65	37	33	61	42	38	31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절차



*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 받는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유공자	공적 내용	후손
1. 김경천 ('98년, 대통령장) 	▶ 1888. 6. ~ 1942. 1., 함경남도 북청 ▶ 1919년 2·8독립선언 이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본격 투신 ▶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며 무장 투쟁 인재 양성과 군사기반 강화에 힘씀 ▶ 1920년 수청지역 의용군 총사령관으로 마적 토벌에 나서 '김장군'으로 명성 얻음 ▶ 1922년 러시아 적군과 연합해 백군 격퇴에 활약하며 고려혁명군 동부사령관 맡음 ▶ 블라디보스톡에서 항일역량 재건에 힘쓰다 소련 당국에 체포되어 옥고 겪음	1. 무사예프안사르 (1999년생) ▶ 국적: 카자흐스탄 ▶ 관계: 현손(5대손)
2. 신숙 ('63년, 독립장) 	▶ 1885. 12. ~ 1967. 11., 경기도 가평 ▶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와 국내 배포 활동에 참여 ▶ 1920년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운동 방향 협의에 힘씀 ▶ 1921년 군사통일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세력 통합에 기여 ▶ 1930년 한국독립당 조직과 한국독립군 참모장 활동으로 무장항쟁 전개 ▶ 1935년 영구에서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이듬해 석방되어 항일활동 이어감	2. 박한웅 (1953년생) ▶ 국적: 중국 ▶ 관계: 손자
3. 전일 ('07년, 독립장) (사진 없음)	▶ 1893. 12. ~ 1938. 5., 함경북도 길주 ▶ 1910년 국권피탈 이후 만주로 이주해 광성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전개 ▶ 1918년 한인사회당 창립에 참여하고 항일 언론활동과 군자금 모집에 힘씀 ▶ 1919년 대한국민의회 서기와 비밀결사 소년단 단장으로 항일조직 활동 전개 ▶ 1920년 항일사상과 사회주의 선전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음 ▶ 1929년 신간회·조선공산당 활동 중 다시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옥고 치름	3. 강바체슬라프 (1959년생) ▶ 국적: 러시아 ▶ 관계: 손자 4. 박콘스탄틴 안드레예비치 (2011년생) ▶ 국적: 우즈베키스탄 ▶ 관계: 현손(5대손)

4. 최병수 ('63년, 독립장) (사진 없음)	▶ 1876. 7. ~ 1919. 4., 충청남도 아산 ▶ 1919년 도고면신창면 일대 동지들을 규합하며 독립만세시위 참여를 적극 독려 ▶ 4월 4일 선장 장날 시위를 계획하고 군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연행 ▶ 주재소에서 일본 헌병의 발포로 순국하며 항일독립운동에 헌신	5. 최영애 (1992년생) ▶ 국적: 러시아 (이하 동일) ▶ 관계: 현손(5대손) 6. 오시펜코애밀리 (2022년생) ▶ 관계: 내손(6대손) 7. 오시펜코로버트 (2026년생) ▶ 관계: 내손(6대손) 8. 최현호 (1995년생) ▶ 관계: 현손(5대손)
5. 최이봉 ('90년, 독립장) 	▶ 1897. 11. ~ 1973. 7., 함경북도 회령 ▶ 1919년 철혈광복단에 참여해 간도 일대 결사대 조직과 대원 모집에 힘씀 ▶ 청년회를 조직해 교포들의 동맹사직과 항일운동 참여를 적극 촉구 ▶ 1921년 적기단 단장으로 선출되어 만주 각지 지부 설치와 무장활동을 주도 ▶ 1926년 적기단을 혁신단으로 개편하며 독립운동과 항일선전 활동을 이어감	9. 한에드워드 (2003년생) ▶ 국적: 카자흐스탄 ▶ 관계: 현손(5대손)
6. 최재형 ('62년, 독립장) 	▶ 1860. 8. ~ 1920. 4., 함경북도 경원 ▶ 연해주 부호로 성장해 한인학교 설립과 유학생 지원 등 민족교육에 힘씀 ▶ 1904년 이후 동의회를 조직해 교포 단결과 항일 의병기지 구축에 앞장 ▶ 1909년 안중근 등과 단지동맹에 참여하고 국내진공작전을 지원하며 무장투쟁 전개 ▶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 총장에 선출되고 독립단 조직을 주도 ▶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어 총살당하며 연해주 항일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순국	10. 이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1986년생) ▶ 국적: 우즈베키스탄 ▶ 관계: 증손

7. 이여송 (‘95년, 애국장) 	▶ 미상 ~ 1936. 2., 미상 ▶ 1930년대 군사조직 재편과 혁명전선 구축을 목표로 하는 조선혁명군에 가담해 항일 무장독립운동에 참여 ▶ 제1사 부관으로 무기 구입을 담당하며 무장투쟁 기반 강화에 기여 ▶ 1936년 집안현 전투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하며 순국	11. 신우태 (2020년생) ▶ 국적: 중국 ▶ 관계: 현손(5대손)
8. 임천택 (‘97년, 애국장) 	▶ 1903. 3. ~ 1985. 9., 경기도 광주 ▶ 1922년 쿠바 이주 후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방회 중심으로 독립운동 전개 ▶ 민성국어학교와 청년학원을 세워 한인 동포와 청년 대상 민족교육에 힘씀 ▶ 1938년 대한여자애국단과 재미한족연합 위원회 활동으로 항일운동 참여 ▶ 재규한족단 활동을 통해 동포 권익보호와 2세 교육·청년지도자 양성에 헌신	12. 임프란코가브리엘라 (1996년생) ▶ 국적: 쿠바 ▶ 관계: 증손
9. 조근백 (‘90년, 애국장) (사진 없음)	▶ 1872. 3. ~ 1908. 6., 경상북도 청송 ▶ 1906년 정용기의 산남의진에 참여해 영양·청송·진보 일대에서 항일투쟁 전개 ▶ 1907년 입암전투 이후 의진이 해산되자 은둔하며 재기를 도모 ▶ 1908년 자택에서 일본군에 붙잡혀 현장에서 총살당하며 순국	13. 이화순 (1962년생) ▶ 국적: 중국 ▶ 관계: 증손
10. 권상익 (‘96년, 애족장) 	▶ 1900. 11. ~ 1943. 5., 함경북도 성진 ▶ 1913년 만주 밀산현으로 이주해 대종교에 입교하고 독립운동 지원에 참여 ▶ 1929년 대일시교당 찬무·전무를 맡아 북간도 지역 대종교 활동 전개 ▶ 만주사변 이후 대종교의 항일 포교활동과 민족운동 지원에 힘씀 ▶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해 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	14. 권성자 (1985년생) ▶ 국적: 중국 ▶ 관계: 증손

11. 남인상 (‘96년, 애족장) (사진 없음)	▶ 1868년 ~ 1951. 5., 함경남도 안변 ▶ 1905년 만주로 망명해 연길 와룡동에 창동학교를 설립하고 민족교육 실시 ▶ 1919년 용정에서 재남북만주 조선민족 대표 17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 ▶ 3·13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포고문 발표와 시위운동 전개에 참여 ▶ 대한국민회 성원으로 군자금 모집과 독립군 양성 등 항일활동에 힘씀 ▶ 간도출병 이후에도 피신하며 독립운동 지원을 이어가고 광복 후 연변 임시참의원 역임	15. 윤정용 (1986년생) ▶ 국적: 중국 ▶ 관계: 현손(5대손)
12. 신흥균 (‘20년, 애족장) 	▶ 1881년 ~ 1940년, 함경남도 북청 ▶ 1911년 만주 장백현으로 이주, 원종교 및 대진단 소속으로 항일운동 전개 ▶ 1924년~25년 원종교 총법회 대정원장. 외무사장 역임, 대진단 단장 대행 ▶ 1933년 원종교도 500여 명을 이끌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에 합류, 대전자령 전투에 참가하여 군의로서 활약 ▶ 이후 영안·목릉·밀산 일대에서 1930년대까지 항일활동 지속, 독서회 등을 개최하여 한인들의 항일사상 고취	16. 최만섭 (1963년생) ▶ 국적: 중국 (이하 동일) ▶ 관계: 증손 17. 강항연 (1976년생) ▶ 관계: 증손
13. 최현구 (‘07년, 애족장) 	▶ 1898. 5. ~ 1941. 1., 경상남도 울산 ▶ 1919년 울산 하상면 일신학교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동참 ▶ 일신학교·동라·남외리 일대에서 약 200명의 시위대와 함께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들고 만세운동 참여 ▶ 경찰관 주재소까지 행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항일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 ▶ 체포 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장기간 옥고를 치름	18. 윤송권 (1973년생) ▶ 국적: 중국 (이하 동일) ▶ 관계: 증손 19. 윤예경 (2004년생) ▶ 관계: 현손(5대손) 20. 김영 (1990년생) ▶ 관계: 현손(5대손) 21. 김예은 (2016년생) ▶ 관계: 내손(6대손)

14. 구철성 (’06년, 건국포장) 	▶ 1902. 2. ~ 1937. 12., 함경북도 온성 ▶ 1920년 북로군정서에 가입해 군자금 모집과 항일무장투쟁 활동 전개 ▶ 대한의용군에 편제되어 항일전에 참여 하였으나 자유시참변으로 고초를 겪음 ▶ 러시아 연추 지역에서 보병 중위로 활동하며 항일전에 참여	22. 강알렉산드르 블라디미로비치 (1985년생) ▶ 국적: 카자흐스탄 ▶ 관계: 증손
15. 장영석 (’95년, 대통령표창) (사진 없음)	▶ 1891. 10. ~ 1964. 5., 경상북도 칠곡 ▶ 1919년 칠곡 석적면에서 장영창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 ▶ 인동·선산 지역 만세운동 확산에 호응해 동지들과 거사를 결의 ▶ 현장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태형 90도를 받음	23. 이창근 (1973년생) ▶ 국적: 중국 ▶ 관계: 증손